

NS홈쇼핑이 28일 '오윤아의 맘스토랑' 론칭 방송을 진행한다. 오후 2시 20분에 방송하는 '맘스토랑 맵달갈비찜'은 품질 좋은 원육에 떡, 당근, 감자, 느타리버섯을 넣어 별도의 재료 추가 없이 간편히 즐길 수 있다. 오후 6시 35분에 방송하는 '맘스토랑 반건조오징어'는 버터구이, 튀김, 볶음,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 정정욱 기자



## ICT | 이통3사, 5G 경쟁 본격화

# 저렴한 요금·단독모드... "5G시장 잡아라"

(5G SA)

LGU+, 온라인 전용 3만원대 요금제 출시  
결합·약정 등 부가서비스 빼고 가격 30% ↓  
KT는 LTE 없는 '5G SA' 시범서비스 돌입



이동통신 기업들의 5G 경쟁이 뜨겁다. 광화문사옥에 시범 구축한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의 체험점점을 점검하고 있는 KT 직원들(왼쪽)과 3만 원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선보인 LG유플러스. 사진제공 | 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기업들의 5G 경쟁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한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진짜 5G'로 불리는 단독모드(SA)를 준비하는 발걸음도 빨라졌다.

먼저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가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는 27일 '5G 다이렉트 요금제'에 중저가 요금 2종을 신설했다. 직영물 '유샵'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결합·약정 등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를 위해 부가 서비스를 걷어내고, 가격은 30% 이상 낮춘 것이 특징이다. '5G 다이렉트 37.5'는 월 3만7500원에 12GB(소진 시 1Mbps 속도), '5G 다이렉트 51'는 월 5만1000원에 150GB(소진 시 5Mbps 속도)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2월 월 6만5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업계 최초 온라인 전용 요금제 '5G 다이렉트 65'를 선보인 바 있다. 이상현 LG유플러스 컨슈머사업혁신그룹장(상무)은 "지난해 선보인 온라

인 전용 요금제가 시장을 태핑(사전 수요조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출시한 요금제는 비대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5G SA 준비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KT는 27일 상용망에서 5G SA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 3사의 5G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다. NSA는 데이터는 5G망을,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신호는 LTE망을 이용한다. 반면 SA는 데이터, 신호 모두 5G망을 이용한다. 그만큼 배터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지연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통신 신뢰성과 보안도 향

상된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과 스마트팩토리, 영상 서비스 등 차세대 서비스에 유리하다. KT의 SA 시범서비스는 임직원들의 참여로 주요 사옥과 도심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식서비스 전 마지막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절차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가입자들에게 SA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부장(부사장)은 "품질을 최우선으로 5G SA 서비스를 준비해왔고, 곧 고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네이버 브이라이브-빅히트 위버스 합친다 빅히트 자회사에 4119억원 투자...팬 플랫폼 강화

네이버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브이라이브'·'위버스'의 사용자, 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합한 새로운 글로벌 팬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위버스'를 운영하는 빅히트 자회사 비엔엑스에 4119억 원을 투자해 지분 49%를 인수한다. 비엔엑스는 네이버 브이라이브 사업부를 양수한다.

플랫폼 통합 작업은 1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에서 브이라이브를 비롯해 카페, 밴드 등 그룹 커뮤니티 전문 조직인 그룹&CIC를 맡고 있는 김주관 대표가 비엔엑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아 플랫폼 통합 작업을 주도한다. 통합 기간 동안 양 사의 각 서비스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K기술에 K콘텐츠를 더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원 빅히트 HQ 대표는 "더욱 진화한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에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 카카오톡 지갑 이용자, 한달 만에 550만 돌파

카카오는 '카카오톡 지갑'(사진) 이용자가 550만 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시 후 한 달 여 만에 달성한 성과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국제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 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본 발급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지갑에 QR 체크인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 자격증 495종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는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전문자격증과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도 추가할 계획이다.

## 블랙야크, 브랜드 엠버서더로 아이유 발탁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회장 강태선)가 가수 겸 배우 아이유(사진)를 브랜드 엠버서더로 발탁했다. 블랙야크는 아이유와 함께 MZ세대의 산행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등산 초보자인 아이유는 '산린이', '등린이'라 스스로를 칭하는 MZ세대를 대표한다. '휴식'과 '놀이'로 변화한 산행과 제품의 기능성, 스타일을 다양한 콘텐츠에서 보여줄 예정이다.

블랙야크 관계자는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행보가 새로운 도전과 과정을 응원하는 브랜드 철학과 맞닿는다고 판단했다"며 "아이유의 맑고 생기 넘치는 이미지가 더해져 건강한 산행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애경 '르샤트라 실내건조 섬유유연제' 선보여

애경산업이 '르샤트라 실내건조 섬유유연제'(사진)를 선보였다. 프랑스 프로방스 르샤트라 농장에서 수확한 내추럴 허브에센셜 오일이 깊고 풍부한 향을 낸다. 적은 사용량으로도 오랫동안 풍부한 향기를 유지해준다. 사탕수수 수유래 탈취성분이 섬유 속 남아있는 냄새의 원인 물질을 제거해 향긋한 향을 지속해준다. 밝고 싱그러움 느낌의 '선플라워 향',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의 '애플민트 향' 등 2종으로 구성했다.



## 마이데이터 28개사 본허가...내달 5일 본격 서비스

### 네이버, 모수 통해...카카오페이 불발

KB국민은행 등 28개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아 2월 5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는 각각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이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업체 중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

샐러드, 쿠팡, 팀웍,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11일 보통주를 전환우선주(CPS)로 1대1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지분율을 기존 17.66%에서 9.5%로 끌어내리면서 본허가 심사 중단 요건을 피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실질적인 대주주인 엔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결국 고배를 마셨다.

마이데이터는 모바일 앱에서 금융 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금융사 브랜드에 관계없이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롯데카드, 전 가맹점 할인 '로카 백' 선배

롯데카드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는 '로카 백(LOCA 100)'을 출시했다. 기본할인으로 모든 가맹점에서 1%를 할인해주고 특별할인으로 온라인 가맹점

에서 월 1만원까지 1.5%를 할인해준다. 전월 이용금액이 75만 원 이상 시 제공되며 실적 미충족 시 0.5%를 할인해준다. 100만 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6만 원 플렉스 바우처도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 경제현장.jpg

### "실 선물로 하트 모양 사인머스켓 어때요"



현대백화점이 2월 11일까지 '하트 모양 사인머스켓'이 들어간 실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사인머스켓 한송이로 구성된 '산들내음 하트머스켓 세트', 사인머스켓과 사과, 배, 한라봉, 천혜향을 함께 구성한 '산들내음 하트머스켓 혼합과일 세트' 등 총 2종으로 구성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무지외반증 수술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른 수술방법 선택해야...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무지외반증을 겪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신는 하이힐이 주된 원인이며, 유전적 요인도 일부 작용한다. 무지외반증은 환자의 부모나 형제 중에 이 변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30~40대 여성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발 통증으로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주된 증상으로는 엄지발가락의 튀어나온 부위의 통증, 오래 걷기

가 불편함, 신발을 신을 때의 통증, 엄지발가락 이외에 발가락 및 부분 통증 등이 있다. 평발이나 선천적으로 관절이 유연한 사람도 이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므로 해당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무지외반증 치료에 관해서는 시중에 여러 종류의 교정기가 이미 많이 출시되어 있지만, 교정기를 이용했을 경우 통증을 완화 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한번 휘어진 뼈를 교정하기 위해선 수

술이 최선의 방법이다. 변형된 발은 절골술과 바리술을 통해 정확한 교정이 가능하다.

과거 무지외반증 수술은 엄지발가락의 튀어나온 부위만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절골술을 이용한 수술 기법으로 수술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 수술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무지의 변형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원위부에서 V자로 절골 후 교정하고, 중등도의 경우에는 간부에서 Z자 절골 후 교정한다. 심한

경우에는 근위부에서 V자 절골 후 교정 수술을 하게 된다.

수술 후 회복은 약 3일 후부터 특수신발을 신고 걷기를 시작하며 약 3주 후부터는 단거리 운전 및 직업의 종류에 따라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 약 2개월부터는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많은 수술적 경험을 볼 때 방치하면 다른 발가락의 변형과 통증도 가져오는 만큼 조기 검사와 정확한 수술이 환자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

최경진정형외과 최경진 대표원장

